

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제2 사회부장

코로나 사태로 주가 변동이 심해진 요즘 이디를 가나 '주식 투자'가 화제다. 직장인은 물론 주부 그리고 2030 청년들까지도 주식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난생 처음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20대가 있는가 하면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샀다는 가정도 있다.

이런 주식 열풍을 반영해 '동학 개미 운동'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 19 폭락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개미')들이 외국인인 매도세에 맞서 대거 매수함으로써 지수 반등을 이끈 것을, 1894년 동학 농민군이 의세인 일본군에 맞서 싸운 것에 빗댄 것이다. 개미들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1월 20일 이후 3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24조2000억 원을 사들여 외국인과의 기관이 팔아 치운 주식을 대부분 받아 냈

'동학 개미 운동'에 대한 단상(斷想)

다. 1500선을 깨고 내려갔던 코스피주식은 개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한 달 만에 1900선까지 치고 올라왔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인 0.75%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0.75~0.9%, 0%대 시대가 시작됐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2% 초반에 머물고 있다.

개미들 주식시장에 몰리다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광주 지역도 대규모 몰량 공급을 앞두고 있어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도 부동산 시장에는 약제로 작용해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증시 주변 자금은 142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3개월 만에

24%인 27조 원이 불었다. 이 가운데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 놓았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투자자에 탐금만 45조 원으로, 같은 기간 61%나 급증했다. 언제든지 실제 주식 투자가 이어질 부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폭락했던 주가가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됐다는 학습효과도 개미들을 주식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두 번의 폭락장에서는 개미들이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다가 외국인과의 기관에게 완패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는 우려의 시선보다 긍정적인 전망이 많다. 이전과 달리 개미들이 테마주보다는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개미들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 LG화학, 카카오, 셀트리온 등으로 대다수가 시장 대표주이다.

하지만 요즘 빛을 내 투자하는 개미들도 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2주 사이 증권사의 신용 용자가 1조 원이나 늘었다. 개미들이 사는 종목도 대형 우량주보다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 등 고수익을 노린 단타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미들에게 불리한 전쟁터다. 외국인과의 기관에 비해 정보의 한계, 자금력 부족, 공매도 등 매매 기법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름 원칙을 세우고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미들의 주식 투자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빛을 내 투자하지 않는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 등 주식시장의 금언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투자 원칙 철저히 지켜야

양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을 주인공과 개에 비유했다. 산책 나온 개(주가는 주인(기업)을 앞서가거나 혹은 뒤처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인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 우량주를 골랐다는 전제하에서 동학 개미 운동에 참여한 개인들의 투자 타이밍은 적절했음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개가 주인을 앞서가는 때도 시점(고평가)을 잘 잡아야만 한다.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손주들이 온다는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설렌다.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손주들이 도착하면 우선 할아버지 방에 모인다. 생활 주변의 이야기 중심으로 5분 정도 묻고 손주들이 답하는 간단한 교육이다. 친척의 호칭, 인사 예절, 학교생활 등을 지루하지 않게 대화하는 것이 요령이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생일 경우 우리의 전통적 교육인 '밥상머리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아이들의 바쁜 학교생활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 식사날'을 정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방식이다.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 즐겁게 이야기

'라떼 상사'와 공감의 자세

를 나눌 때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부정적인 말과 잔소리는 삼가고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예의범절이나 지식을 어른들로부터 배웠다. 경험이 비추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젊은이들 역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오며 배우고 터득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자신의 지식의 기성세대의 경험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귀담다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스마트폰 기기를 통한 비대면 생활 양식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삶이 최우선이다. 직장에서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칼퇴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전에는 어디 그러했던가. 기성세대는 자신의 생활이 다소 침해받더라도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20·30 청년 세대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고 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직장 내 회식 장소에서 공감도 가지 않는 윗본의 이야기에 정답을 맞춘다는 것이 연극을 하는 기본이라는 젊은이들이 많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라떼 상사'란 말이 유행이다. '라떼(Latte)'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우유를 곁들인 '카페 라떼'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그러나 내용은 정반대다. '라떼 상사'란 후배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사는 '꼰대 상사'를 부르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은어다.

국어대사전에는 '꼰대'를 은어로 '늙은이'라 정의하며, 학생들 은어로는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나와 있다.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이다. '말 안 통하는 꼰대'와 '노력하지 않고 불만만 많은 젊은이' 간의 서로를 향한 비난이 가정과 직장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다.

가치관의 차이가 생겨난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든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젊은이와의 소통은 가급적 짧고, 간단하

고, 명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앞에서 '꼰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절이나 젊은이들은 다 그랬다. 기원전 1700년 무렵 수메르시대에 쓰인 점토판 문자를 해독했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꾸준히 발전해 왔다는 사실이다. 젊은이의 행동을 두고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기다려 주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바이흐로 '공감의 시대'다.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면 '노인'이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르신'이라고 한다. 젊은 층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소통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바르지 못한 젊은이들의 태도에 무조건 핀잔을 주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들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공감의 자세가 절실하다.

기고

하수(下水), 기회의 블루오션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의 절박한 도주로는 바로 파리의 '하수도'였다.

18세기 유럽은 산업 혁명의 태동으로 최고 번영을 누렸지만, 수인성 질병인 콜레라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콜레라는 당시 위생 관념이 거의 없었던 유럽에 물과 위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됐고, 이를 계기로 하수 관리를 위해 근대식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울산시 울주군 교통로 456호 유적에서 배수 시설이 발견돼 청동기 시대부터 하수 시설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1918년~1940년 사이 225km의 근대적 하수도가 형성됐다.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하수와 분뇨 등 오염 문제가 대두하면서 1966년 하수도법이 제정됐다. 현대적 의미의 하수도는 1976년 국내 최초의 하수 처리 시설인 청계천 하수처리장(현재의 중랑 물재생센터) 준공으로 시작됐으며, 불과 50년 남짓 경과한 현재 전국 3900여 개소의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

원래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 관로·하수 처리 시설 등 관련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수 처리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다시 자연에 되돌려 주는 과정으로 인류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렇듯 하수도는 동서양과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하수를 처리하는 1차원적인 환경 기초 시설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하수처리장 이중 북개나 지하 설치 등 선진 기법 적용과 주민 친화적 시공으로 악취 발생이나 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상부에는 생태 공원이나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해 인근 주민의 여가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체육공원' 등의 맞춤형 편의 시설을 제공하면서 명칭도 기존의 하수처리장에서 '수질 복원 센터'로 바뀔 만큼 주민 친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은 화학 원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소수력 발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하수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는 열병합 발전에 이용하거나 도시가스용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하수 처리장 방류수 역시 현재까지 이

용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도시 하천의 유지 용수나 위탁 용수, 농업·공업 용수 그리고 일반 잡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공급 가능하고 직접 재이용도 가능한 중요한 잠재적 수자원이다.

이를 방증하듯 세계적으로 하수 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이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하수도 시설은 '더러운 물을 모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됐으며, 주민 기능 역시 도시 위생과 침수 방지였다.

이제는 하수가 단순히 버려지는 물이 아닌 광범위하고 잠재 가치가 있는 기회의 블루오션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과 수요 개척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하수는 더러운 물이 아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며, 하수 처리 시설 또한 여가 공간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철저한 선진 하수 관리는 미래 세대가 좋은 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our future)을 만들기 위한 기회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社說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버스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들에게 필수적 편의 시설이 바로 저상버스다. 한때 광주·전남 지역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 목표를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시내버스의 45%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광주 지역 101개 노선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999대 중 저상버스는 34개 노선에 216대(21.6%)에 불과하다. 게다가 기한 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 지역은 더 열악해 시내버스 721대 중 95대(13.1%)만 저상버스다. 더욱이 목포(29대)·여수(25대)·순천(28대)·광양(5대)·나주(8대) 등 5개 시에서만 운행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1~2주 안에 전액 지급해줬지만 우리는 아직 지급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 하위 70%만 줄지 모든 국민에게 줄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일을 끌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위 30% 때문에 나라꼴을 낼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주경 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됐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고 먼저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에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주장하던 선거가 끝나자마자 최근 입장을 바꿨다. 전 국민 지급에는 찬성하지만 국제 발령으로 나랏빚을 늘리는 여당안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술 더 떠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주는 것은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장애인 16명을 8개 조로 나눠 광주 시 일곡동 버스 종점에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까지 '저상버스 타고 시청 찾아가기' 행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가용으로 20여 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을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로 이동하는데 1시간30분에서 2시간이나 걸렸다. 배차 간격이 긴 탓이다. 그나마 일반 승객들로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등 인구 열 명 당 세 명꼴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상버스를 조기 확충해야 할 것이다.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 국민 지급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여당은 정부와 견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야당도 설득하지 못해 4월 마지막 국회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5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오는 29일쯤엔 추경예산이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담긴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

無等鼓

"마음으로만 보시고 내년에 찾아 주세요!" 신안군은 지도읍 선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수선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만개한 수선화 영상과 사진을 균형 홈페이지에 올렸다.

섬을 노랗게 물들인 수선화는 26종 200만 송이에 달한다. 입자도에서 개최 하려던 '섬 톨립 축제' 역시 취소하고,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꽃봉오리를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스위스 정부 관광청은 공식 블로그에 일 러닝(Trail Running)을 소개한다. 여성 트레일 러너를 통해 스위스의 '트레일 러닝' 코스와 청정한 자연 풍광을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체리꽃 등 봄꽃 가득한 꽃길 하이킹 코스와 5개의 산정(山頂) 호수를 따라가는 하이킹 코스도 소개한다.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스위스와사랑에 빠지다'(#inLOVEwithSWITZERLAND) 태그를 사용해 다양한 풍광을 선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 문화가 바뀌었다. 여행지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여행지 사진이나

영상을 감상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랜선 여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랜선은 '랜'(LAN·근거리 통신망)과 '선'(線)을 조합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즐기는 가상 여행 즉 '방구석 여행'을 의미한다. 대면(對面)을 피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생겨난, 온라인을 통한 가상적 여행인 셈이다.

네티즌들은 기발한 '랜선 여행법'을 개발했다. 에펠탑과 피라미드와 같은 해외 명소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합성하는 놀이다. 스타들도 SNS를 통해 채지 있는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동기 부여 전문가이자 작가인 앤드류 매튜스는 "우리는 목적지에 달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답답한 분위기에서 새로운 '랜선 여행'을 나름 즐겨야 할 듯하다. 어쩌면 지금껏 가 보지 못하고, 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듯싶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